

철학사

80 언어철학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실증주의의 이상언어철학, 그리고 1940년대와 50년대에 종교철학 및 윤리철학과 연관지어 논의되어 온 일상언어철학의 발전 이후, 언어철학은 최근 형이상학 과 존재론의 발전을 수반해 왔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에게 있어 사유의 범주, 존재의 범주가, 그리고 언어에 드러나는 논리적 범주들이 존재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논리실증주의의 몰락과 그 환원주의적 언어관이 형이상학을 배제해버린 방식을 고려할 때, 새로운 언어관들이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엿보고 싶다면, 6년 전에 출간된 존 패스모어의 저서, 『최근 철학』 이 아니라 『최근 철학자들』 (Recent Philosophy) 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주제를 잘 정리해 놓았지만, 완벽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형이상학에서 존재론을 다루는 주제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적 실체와 정신 상태 외에, 불변하는 논리적 대상이라는 세 번째 종류의 대상이 존재할까요? 이는 "실재하는 보편자가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 한데, 때로는 본질의 관점에서, 때로는 논리적 대상, 즉 논리적 실체의 관점에서 묻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은 언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20세기 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레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192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어 에 있어서 의미와 지시를 구분했다. 다시 말해, 의미와 지시를 모두 지닌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시는 당연히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을 의미한다.

감각 자료에 관한 진술이라면 감각 자료에 대한 것이고, 물질적 대상에 관한 진술이라면 물질적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신에 관한 진술 이라면 그 지칭 대상은 신, 즉 그러한 의미의 지칭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라는 단어, 즉 문장의 의미는 그 논리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장은 명제를 나타내는데, 명제는 단순히 문장이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태는 영어

,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는 논리적인 상태, 즉 문장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러한 논리적 상황은 감각 자료, 물질적 대상 등과 같은 것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유명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유명사는 그 이름을 가진 바로 그 개인을 지칭합니다. 즉, 이름 자체의 의미와 그 개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추상적인 용어, 즉 보편적인 개념이든 일반적인 개념이든 간에 개념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용어는 개체들의 전체 집합, 개체들의 전체 부류를 가리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 보편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와 지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미를 의도적 의미로, 지시를 외연적 의미로 구분합니다. 외연적 의미, 맞습니다. 우리는 논리학에서 외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장에서 사용되는 명사의 외연,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보편적 외연이고, "어떤 사람들은 특수적 외연"은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도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 포퍼는 의미와 지시라는 두 세계뿐 아니라 제3의 세계도 구분합니다. 즉, 문장이 지시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 외에도, 의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 요소가 더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정신 상태는 성찰의 관념, 주관적인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 상태의 논리적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논리적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참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보편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즉,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논리적 대상, 다시 말해 보편자, 진정한 보편적 본질, 즉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매개체인 특정 단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A는 언제나 A이고, 그 외의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경험하는 언어와 정신 상태를 예로 들더라도, 논리적 대상과 물리적 대상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논리적 대상은 인간 본성의 본질이고, 물리적 대상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대상, 논리적 실체는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도 짐작 하시겠지만, 프레게와 포퍼가 긍정하는 논리적 대상이라는 개념은 경험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바로 W.V. 오퀸이 그러한 인물이며, 그는 자신의 에세이 「존재론 없는 논리」에서 이 개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존재론 없는 논리.

그의 견해는, 논리에는 의도적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도 의도적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될 수 없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상태는 본질도, 보편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어에 필요한 것은 술어와 한정어 뿐입니다. 술어와 한정어. 경험적 참조를 갖는 술어와 형식적 기능을 갖는 한정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특정한 경험적 실체, 즉 물리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필멸성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험적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논리적 한정어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상적 언어의 상징주의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진술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재빨리 지적합니다. 즉, x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필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알겠어. 그리고 만약 모든 걸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그냥 모든 x에 대해, 즉 x가 인간이라면 x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형식 논리의 형식적인 절차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한정어와 경험적 참조를 갖는 용어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논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말하려는 바는, 그리고 그는 이를 매우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의미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발화될 때, 질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는 언어를 , 다시 말해 언어를 언어적 행위, 일종의 명시적인 신체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는 생각이 언어의 상징 체계로 표현되는 한에서만 관심을 갖는다. 생각은 심리적 활동이 아니다. 생각은 오로지 언어적 행위일 뿐이다.

굳이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구상하면 됩니다. 언어의 기호, 언어의 행동 양식 말입니다.

그래서 둥글다거나 인간다움과 같은 보편적인 용어는 본질이나 논리적 대상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유사한 개별적인 것들의 전체 집합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는 철저한 명목론자입니다.

범주 론적' 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 '둥근 모양' 이나 '인간성' 처럼 보편적이고 논리적 으로 보편적 인 단어 들이 있는데 , 이런 단어들을 예전에는 보편적 용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동의어 - 범주 - 문명 ,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것들의 집합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분류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은 바로 언어이며,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조직화합니다.

사물의 집합, 즉 범주들은 공통된 실체나 논리적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이러한 공통 범주 론적 용어 로 묶어 표현하는 경험적 유사성일 뿐입니다 . 따라서 동전의 경우, 진정한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논리적 실체에 대한 논의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이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보편자에 대하여』 라는 책을 통해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월터스토프는, 그리고 그의 책은, 출간 당시 20세기 보편자 이론에 관한 최고의 책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며, 이 책을 통해 분석철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보편자를 가능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능함.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 논리적 가능성, 즉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현재 모습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동일성의 법칙에 구속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 실체, 어쩌면 물질적인 실체 외에도, 이 세계와 모든 가능한 세계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특정한 종류의 것들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고양이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성의 영역으로 다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즉, 가능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범위의 일들이 가능하며, 그중 일부만이 이 세상에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런 관점에서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는 화이트헤드, 특히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용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여기서 논리적 가능성은 시공간 세계의 실제 실체와는 구별되는 영원한 대상입니다 . 그는 화이트헤드주의자는 아니지만, 플라톤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화이트헤드식 보편자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실재하는 것은 보편자 였고 , 개별자는 플라톤의 비유를 빌리자면 그림자였습니다. 즉, 보편자의 이미지였던 거죠 . 그런데 월터스도르프는 개별자가 바로 실체,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하는 사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편자는 플라톤의 경우처럼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능성 중 일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간성의 논리적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 즉 가능성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들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논리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 바를 각주로 덧붙이겠습니다. 월터스도르프의 미학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보편성에 관한 그의 저서가 나오기 몇 년 전, 그는 미학 이론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술의 작품과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보편적인 객관적 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견해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을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의 더 짧고 대중적인 저서인 ' 예술은 행위다(Art as Action)' 를 보셨다면, 그리고 이 책이 여기 예술철학 수업에서 교재로

쓰이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모든 언어에서 같은 소리에 대한 유사한 연상 작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가 미학 강의에서 탁구 게임을 하면서 이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핑'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쁜 소녀)

활발한 소년. 핑은 뭐지? 풍은 뭐야? 음, 양증맞은 소녀는 핑이고, 활발한 소년은 풍이야. 그는 이런 식으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예를 쏟아낼 것이다.

유사한 소리에 대한 유사한 연상 작용.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문화권을 초월한다는 것을 해당 분야를 연구한 문헌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특정한 미적 연상 작용과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보편자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웨슬리와 헤일 거리에 있는 코너스팟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미학 이론이 보편자 이론, 즉 논리적 가능의 이론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이론을 미학 이론에서 활용하고 있고, 창조론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가능한 모든 세계에 대한 온갖 논리적 가능성 중에서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보편자에 관한 책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논리적 실체에 대한 논쟁이며, 이는 보편자와 실재적 본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언어철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는 인식론에서 언급했던 실재론과 반실재론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은 프랑스 언어 구조주의자들의 연구입니다. 구조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주의가 등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랑스-스위스 심리학자인 피아제가 인간의 인지 발달에 있어 미리 정해진 단계들이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뇌 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형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인지 발달에 대한 일종의 선형적, 미리 정해진 구조가 있다는 거죠. 촘스키를 보면, 그는 언어학에 구조주의를 적용했습니다.

드 소쉬르 역시 언어에 대해 논하지만, 그의 독특한 관점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경험적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인, 임의로 부여된 단어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임의로 부여된 용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단어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단어들 간의 관계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를 구조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만의 경험 세계를 구조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화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의 언어를 그런 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실증주의적 경험의 조직화된 세계, 즉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실증주의자들이 이 세계를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적 안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 세계에는 고정된 의미, 보편적인 개념, 또는 참조할 수 있는 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된 감각 경험의 개별적인 것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신칸트주의적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틀이라는 의미의 칸트주의와는 다릅니다.

개념적 틀이라는 의미에서 칸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적 틀, 즉 언어 구조의 틀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 틀을 마치 선형적으로 실제 감각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칸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언어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 방식에는 상대성이 존재하며, 그 어느 것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가 경험의 세계를 구조화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실재론의 결과입니다.

유럽의 현상학적 전통과 이 나라의 분석철학에서 언어철학과 언어이론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된 것이 바로 그러한 구조주의입니다. 유럽에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해체주의 철학자인 데리다가 등장했습니다. 해체주의란 무엇일까요? 구조주의자들이 우리가 구조화했다고 말하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데리다, 즉 해체주의자가 하는 일은 작가가 구축한 언어 체계를 해체하여 그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이 작동하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경험의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상대성은 그러한 점에서 확장됩니다. 방금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촘스키의 이름을 언급했죠.

촘스키와의 차이점은 그가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심층적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칸트주의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소쉬르가 언급하는 표면 구조 외에도 그가 말하는 보편적인 심층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체주의자는 심층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표면 구조일 뿐이라고 봅니다.

음, 구조주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이 여러분과 다른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음악가는 음악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음악가들의 음악에 귀 기울여 보면,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과학과 뉴턴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이러한 다양성은 분석철학 전통에서 넬슨 굿맨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과인 전통의 명목론자인 넬슨 굿맨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구조화하는 이러한 개념을 과학철학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과학은 단순히 언어적 구성물을 다루는 것이며 , 과학 이론은 하나의 언어일 뿐입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에른스트 마르크스도 같은 말을 했었죠. 마르크스는 과학 이론이란 감각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음, 경제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과학 용어도 다양하고, 대안적인 과학 이론도 있을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인 과학 용어들은 서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 서로 비교 불가능합니다.

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타당하고, 똑같이 유용하죠.

여기에는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 구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쿤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굿맨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구조화 방식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과학 언어는 감각적 특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 됩니다 . 1부터 103까지 숫자를 따라가서 윤곽선을

그러 동물 그림을 완성하는 점 잇기 퍼즐을 아시나요? 과학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만드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죠. 과학의 이론과 일반적인 개념은 설명이 아니라 기호라는 것입니다 .

그것들은 예술적 상징이라기보다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넬슨 굿맨은 미학 이론에 대해 저술했는데, 그의 미학 이론에서는 예술 작품을 특정한 것들을 구조화하는 창조적 언어 로 봅니다.

예술과 과학의 세계는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상대주의자이자 현상주의자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과학에 대해 현상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이라도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림을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학적 그림이란 데이터의 범위를 포괄하는 그림입니다.

범위가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방식이 아닌 단순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바로 간결성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과학 철학은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과학철학에서 상대주의적 흐름을 이끈 인물은 파이어아벤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어떤 하나의 정확한 그림이나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모든 과학적 지식의 상대성을 매우 직설적으로 주장합니다.

과학철학에서의 이러한 반실재론은 리처드 로티의 유명한 저서 『철학과 자연의 거울』에서 드러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거울은 존 로크가 말하는 마음속의 주관적인 관념, 즉 표상적인 관념을 상징합니다. 로크는 바로 그러한 표상적 인식론과 그와 연관된 기초주의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념 구조, 복잡한 개념, 과학 이론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학이 사물 자체에 대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대화일 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언어와 구조 사이에 상호 번역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리처드 로티. 음, 넬슨 굿맨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힐러리 퍼트넘의 연구가 있습니다.

구성 방식이 분명히 가능하며 과학 이론은 당연히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빨리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기초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학 이론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성물들이 단순히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재론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할까요? 그는 우리가 특정한 관찰과 물질적 실체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관측 결과와 물질적 실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자, 힘장, 공간적 크기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구성 과 상관없이 관찰하고 측정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하는 틀, 이론적 구조는 잠정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진술을 의도한 것이죠. 화이트헤드의 과학에 대한 잠정적 실재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퍼트넘은 과학을 잠정적인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언급하는 이러한 알려진 참조점 안에는 전자, 힘장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연적 종류, 즉 특정한 자연적 종류의 사물들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류는 단순히 언어가 어떤 것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물에는 객관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종류들. 원한다면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리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논리적 객체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고의 대상입니다.

사유의 대상들이 있다. 보편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좋다. 본질적인 것들이다.

자연의 종류. 따라서 퍼트넘은 과학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분류 체계, 즉 특정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자임이 드러납니다.

특정 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조화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주의 대 반현실주의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세 번째 문제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가능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가능 세계요.

우리가 이미 부딪혔던 두 가지 고려 사항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경험을 구조화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조화하는 세계라는 의미에서 가능한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이 시공간 세계에서 모든 논리적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테르스토르프의 보편자 이론은 이 세계 외에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논리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의 논리적 대상 중에는 다른 가능한 세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세계 외에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다른 세계들이 실현된 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세 개의 반쪽을 가진 세상. 또는 내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 세상. 그것은 지금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일거죠.

이 세계에서 약간 벗어난 세계, 크게 벗어난 세계 등 온갖 종류의 다른 가능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들이죠. 즉, 우리의 언어 덕분이든 논리적 가능성의 영역 덕분이든, 사물이 현재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능 세계의 언어와 가능 세계의 존재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능세계 존재론. 넬슨 굿맨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벌써 짐작이 가지죠?

저는 그를 소개하면서 그가 존재론 없는 논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논리적 실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한다고 봅니다.

넬슨 굿맨에게 있어 가능세계의 언어는 단지 언어적 장치일 뿐입니다. 의미론적 속임수인 셈이죠. 모든 가능세계는 특정한 참조점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거나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첫째 아이가 딸인 경우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세계는 그저 가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설인 거죠

그러므로 가능세계의 언어는 단지 경험적 가설의 언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가능세계에 관해서는 반실재론자입니다. 가능세계에 관해서는 반실재론자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철학자 DK 루이스가 있습니다. DK 루이스는 다른 가능세계의 언어가 단지 명제일지라도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가설적 명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는 논의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처럼 반사실적 명제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반사실적 명제. 그리고 최근 언어 철학과 논리학에서는 반사실적 명제의 논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사실적 명제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단순한 가설적 명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경험적으로 옳다고 확인되지 않을 경험적 가설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설로 환원될 수 없다면, 우리는 반사실적 명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논리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종류의 논리적 대상, 논리적 실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합니다 .

물론, 이 주장의 핵심은 반사실적 진술은 나머지 없이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없이 가설로 변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가능세계에 대해 실재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 세계에 대해 실재론자가 되려면 논리적 실체에 대해서도 실재론자 여야 합니다 . 그래서 반사실적 명제, 즉 초세계적 동일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세계 에서 , 예를 들어 그가 매부리코가 아니었다 면 어땠을까,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예전의 소크라테스일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 동일한 소크라테스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본질이 매부리코를 가졌다는 사실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또 다른 언어로의 번역 가능성. 이런 종류의 논쟁은 온갖 흥미로운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앨빈 플렌디거는 그의 저서 『필연성의 본질』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랜팅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반론을 제거하려 애씁니다.

만약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든 반론은 해소됩니다.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은 반론자에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반론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철학이 나아가는 방향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거의 모두 새롭게 조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으로 흥미로운 발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철학과 윤리철학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 또한 건재합니다. 저는 형이상학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를 잠시 미뤄두는 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네, 누군가 그랬죠. 제가 방금 플렌디거에 대해 여쭙보려고 했는데, 플랜팅가가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는 이 세상에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렇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de dicto'에서 'de re necessity'로 넘어가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언어 속에서, 즉 가능세계의 언어 속에서 필연적인 것에서,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어떤 언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로이? 네, 형이상학적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했었어요.

음,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인과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마 어떤 가능성 있는 세계에서는 인과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한한 것들은 인과적으로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세계에서도 그것이 인과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저는 신의 관점에서 더 궁금했습니다. 신은 죄를 짓지 않거나 원인을 규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신이 죄를 짓는다면, 과연 신은 여전히 신일까요?"

에서 신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신에게 본질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플랜팅가가 마켓 대학교에서 했던 강연 중 일부가 이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강연의 제목은 "신에게 본질이 있는가?"입니다. 만약 신에게 본질이 있다면, 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은 신일 수 없습니다.

아니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어요. 만약 완전한 선함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죄가 불완전함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이라는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물론 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신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신'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존재에게 임의로 부여된 이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념적인 함의를 모두 안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를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신'이라는 이름이 개념적 내용이나 의도적 의미, 외연적 지시를 전혀 갖지 않는 단순한 임의적 기호에 불과하다면, 즉 '신'이라는 단어가 외연적 지시만 있고 의도적 의미는 없다면, 당신은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인 의미까지 있다면, 신조차도 신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네, 신은 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건 신을 논리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거잖아."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자이시며, 논리의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시므로, 존재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적어도 어떤 본질, 즉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시간이 또 다 떨어진 것 같네요.